

광주시 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이 함께한다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
‘시민참여단’ 위촉...2040년 전력자립을 목표 설정

시민이 직접 지역에 맞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연구하고, 광주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광주시, 광주NGO시민재단, 광주전남 연구원, (가)광주광역시민참여회의가 주관하고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워크숍’이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YWCA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된 에너지분권의 필요성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광주시민 100명을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단’으로 위촉했다. 시민참여단은 10대부터 70대까지 광주 5개구 전역에 살고 있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3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해 강의와 토론을 통해 2040년 광주의 전력자립을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9년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광주시의 경우 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 형태로 작성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한 정은진 에너지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이번 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전력자립에 초점을 맞춰 2040년 목표를 세

우고 그 실현방법을 찾는데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멋진 역할을 맡게된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가격 ZERO 사회”라는 주제의 강의를 한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지금의 기술로 이미 에너지전환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2050년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미 변화는 진행 중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동원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세로 봤을 때 광주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2030년 20% 목표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2040년 장기전망에서는 기술혁신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동원 박사는 ‘광주시 전력자립율은 5%에 불과한데 이것은 내륙에 위치해 있는 서울 1.82%, 대전 1.96%에 비해 그렇게 작은 수치가 아니다’며 “내륙에 위치한 광주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서 광주의 전력자립을 목표를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참여단은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측면의 가능성, 현실성, 현재 정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광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통해 확인했다.

한편, 다음 2차 워크숍은 오는 7월 오후 1시에 YWCA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2차 워크숍에서는 광주 지역에너지전환의 방향을 공급과 수요, 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통해 ‘광주시 2040년 전력자립 목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멸종위기 ‘노랑부리백로’ 신안 압해도서 관찰 150여마리...영광 칠산군 집단번식지서 남하한 듯

신안군은 ‘압해도 갯벌에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150여 마리를 관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주로 무인도에서 집단번식하고 갯벌에서 물고기, 갑각류 등을 먹는 노랑부리백로 전 세계적으로 2600~3400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서해안 무인도서에 1000여 마리, 북한에 12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랑부리백로는 번식 후 서해안 일부 지역에 모여 서식하다가 가을에 월동지인 동남아시아, 일본 등으로 함께 이동한다.

이번에 압해도 갯벌에서 관찰된 백로

는 대부분 올해 태어난 어린 새로 인근 영광 칠산군도 집단번식지 등에서 남하한 것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압해도 갯벌은 어린 노랑부리백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서식지로, 150여 마리가 모인 이유는 갯벌의 먹이, 휴식지 등 좋은 서식환경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압해도 대천리 갯벌은 또한 봄과 가을 이동 시기에 2만여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도래하는 지역이다.

군은 앞으로 압해도 대천리 갯벌 일대를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과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형마트 종이박스 폐지 환경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앞으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끈이 사라진다.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의 서울가든호텔에서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자율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 테이프 및 끈을 자율 방진다.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방제훈련’
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방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기름을 싣고 달리는 탱크로리 차량이 교량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버커C유 500 L가 흘러나온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 됐다.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최근 열린 ‘2019년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방제훈련’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광산구, 광산소방, 광산경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방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기름을 싣고 달리는 탱크로리 차량이 교량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버커C유 500 L가 흘러나온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 자연성 회복·지역상생 방안 모색 지역 환경단체 토론회

보 해제를 통한 자연성 회복 등 지속가능한 영산강 되살리기와 지역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나주시사랑시민회·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오후 나주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영산강 자연성회복과 지역상생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유역 중심 물관리 체계로 본격 전환함에 따라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성이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전송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시민자부터 하구까지 영산강 건강성 회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찬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는 ‘보 해제 그리고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은 ‘주민참여형 영산강 살리기·유역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갯길·특정도서 출입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팀’ 구성 10월27일까지 가동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갯길 및 특정도서 등의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특별 단속기간은 산행객이 몰리는 10월 27일까지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개인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 산행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운영중이다.

최근 3년(2016~2018)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한다.

같은 기간 전국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 갯길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이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갯길 및 특정도서 등을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국립공원 사무소의 설명이다.

또한 국립공원 연구원 연구결과와 갯길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행위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자연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자연생태계 보전은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0 5 1 7 4 9 0 0 2
0 0 0 0 0 0 0 0 0 0

116 40 point
110 20 point
J8 14 point
J7 12 point
J6 10 point
J5 8point
J3 6point
J2 5point
J1 4point
J1+ 3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